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역경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고,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어떤 이의 청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에 소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해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므로써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고,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므로써 참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알려 주셨고,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발걸음도 조심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정성껏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 온 마음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또한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짊어 지셨고, 골고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몸소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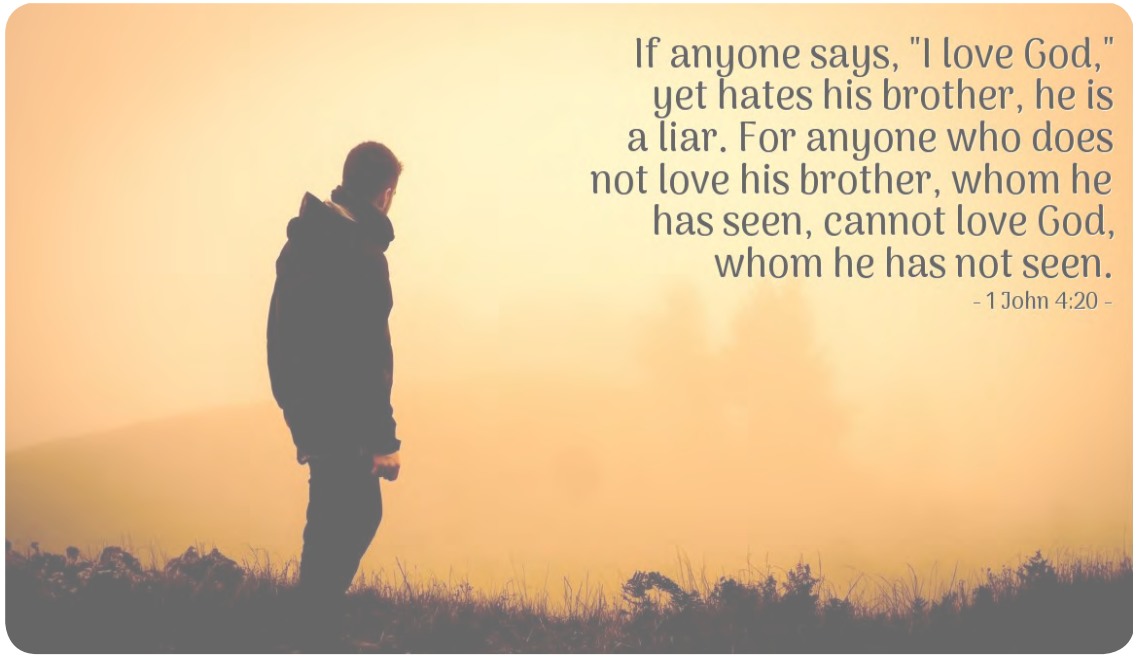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죄의 본질과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인간은 모든 자유로운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선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늘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데 전념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할 때에도 선의 가면 하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며, 충동적인 것이고, 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선택을 합니다.



If anyone says, "I love God," yet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any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 1 John 4:20 -

죄는 인간의 선한 마음과 의로운 삶에서의 이탈과 탈선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게 되니 하느님을 거스르는 불의를 저지르고, 인간 공동체와 이웃을 거스르는 불의와 죄인 자신을 거스르는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하느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감각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며, 종교로부터 죄를 분리시키고 종교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악이 아닌 하나의 불완전한 것으로 고찰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확실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죄는 확실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고유한 임무와 목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범죄행위는 하느님의 계획을 배척하고 그의 취향에 따라 다른 목표를 지향하게 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하느님과 그의 도움을 배척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혼란시키고 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로써 하느님께 자신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거부는 최고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러야 할 순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손해를 줄 뿐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요한 4,20). 공동체 안에서 건전치 못한 풍토의 조성과 묵인, 악에 오염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여와 소홀 등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는 죄들도 사회적 차원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죄는 죄인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를 짓고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죄인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써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심오한 곳에는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의 참된 행복과 그의 최종목적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완전한 성숙과 발전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병든 인격의 증상이고 정신적 혼란과 질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이신 것입니다.

묵주기도

‘묵주기도’(珠祈禱)를 지칭하는 말인 ‘로사리오’(Rosario)는 원래 ‘동정 마리아의 장미꽃다발’(Rosarium Virginis Maria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묵주알을 세면서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묵주기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장미 꽃다발’ 혹은 ‘장미 꽃밭’(라틴어 Rosarium; 이탈리아어 Rosario)라고 불리던 이 기도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매괴신공’(玫瑰神功)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자들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장미꽃들로 엮은 기도의 화관을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오늘날 묵주기도가 활발히 보급되기까지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남(南)프랑스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성도미니코가 이단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던 중, “로사리오에 대한 신심을 퍼지게 하라. 그 (신심) 행위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성모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도미니코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신자들과 함께 열렬히 기도하며 설교하였고, 그 결과 이단 세력이 점차 축소될 수 있었다

묵주기도의 기원은 초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신(神)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져 신자들은 기도 대신 장미꽃을 봉헌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해 당시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 이것은 하느님을 뵈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데 합당한 예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해를 피한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면서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합니다.

한편,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隱修者)나 독수자(獨修者)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날마다 시편을 각각 50편(篇)이나 100편(篇) 또는 150편(篇)씩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었는데, 이렇게 고안해 낸 묵주는 기도하는 사람을 분심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고 전심으로

고 합니다.

이 시기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성모의 종 수도회’는 성모님의 다섯 가지 고통에 대한 신심과 성모 칠고(七苦)와 칠락(七樂) 신심을 널리 전파하여 오늘날의 ‘칠락 묵주의 기도’라고 전해지는 ‘프란치스코 묵주기도’를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묵주기도는 15세기 후반에 생겨났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 드 라 로슈’ 수사는 1470년, ‘매괴회’(玫瑰會)라는 신심 단체를 만들어 묵주기도를 열심히 보급하였습니다. 그는 묵주기도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강생, 수난, 부활에 따라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로 나누었고, 이 기도는 더욱 널리 퍼져 나갔고, 15세기 말에 이르러 전통적인 신비 15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빛의 신비가 추가되면서 20단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전신자 실천사항

-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일꾼을 불러오는 포도밭 임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밝혀 주십니다.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이고, 일꾼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며,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품삯은 구원(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마태20,1-2)

인력시장에 가보면 “선택된 사람들과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하루를 보내지만, 선택되지 못한 이들은 그날 일을 하지 못하기에 다음날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은 선택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선택된 이들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들도 생각해 줘야 하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은 아홉 시쯤에 다시 장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또 아홉 시쯤에 장터에 나갔을까요? 오늘 일을 해야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은 모든 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 하나 하나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마태20,3-5 7)

포도밭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삯을 주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할 자리를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적당한 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선택 받은 이들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소식

◆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부활대축일에 세례받을 예비자를 10월부터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초대합니다

• 2014년~2017년도 사이에 세례받은 신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 29일 (주일) 11:30분
• 장소 : #101호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목주기도 성월에는 목주기도를

• 목주기도 성월에는 목주기도를(지향: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바칩시다.
• 10월 31일(화)저녁에 목주기도의 밤 행사를 합니다.
• 한 주간 동안 바친 목주기도는 성모상 앞에 준비된 봉헌표에 구역과 목주기도 단수를 기록하여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ational Rosary Rally

• 10개국 국제 목주기도 대회
• 일시: 10월 21일 (토) 10시

• 장소 : 성당

• 참가대상: 시애틀, 타코마 지역 모든 레지오 단원, 전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점심 제공합니다.

◆ 문화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매듭 목주 만들기 : 10/8~10/29 4주간 있습니다.
• 문화대학 피아노반에서 키보드 도네이션 받습니다.
집에 사용 안하시는 키보드가 있으신 분은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문화대학 사무실로 가져다 주십시오.